

地金色는 磨研된 部分에서 赤銅色에 가까운 色을 보이고 있는 것이 異色的이었으며 鐘身은 全體가 검은色 主調의 烏銅色 色이 덮여 있었고 鐘體는 大體로 厚朴한 느낌이며 四爪龍鈕와 鐘身內部로 貫通된 四珠角筒이 비교적 均衡 잡혀 보였다. 鐘의 上緣은 如意頭狀의 陽鑄立華形帶로 둘러있고 上帶와 下帶는 蓮唐草狀의 陽鑄草文으로 되어 있으며 역시 草文帶로 된 四個處의 乳廓內에는 各其九乳가 圓形으로 돌출되어 있다.

이 四個의 乳廓사이의 間地에는 各其 合掌飛天像이 陽鑄되어 있고 各乳廓의 下部에 位置해서 四個의 蓮華座가 陽鑄되어 있는데 이 各部陽鑄文들은 流麗하다기 보다는 稚拙을 不免했다는 느낌이이다. 그러나 朝鮮鐘本來의 各部樣式을 具全한 在銘鐘의 一例로서는 그리 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鐘의 收藏番號는「九八二」로 되어 있으나 이에 關한 收藏由來도 밝힐 記錄은 남아 있지 않으며 다만 Carnuschi氏自身이 一八〇〇年代末 期에 日本에서 사온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상 旅寓에서 詳考할 아무 資料도 가진 것이 없이 不分明한 이 短文을 草하게 된 것을 널리 謝過한다.

一九六二、五、二四 저녁 Wien 市에서

百濟 石製小像斷片(其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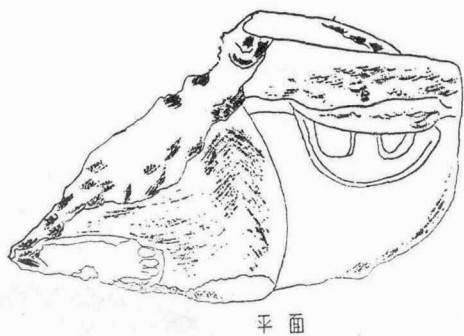
黃 壽 永

近年에 이르러 百濟末期의 作品으로 推定되는 摩崖三尊像 兩例의 發見이 있었고(瑞山郡雲山面과 泰安面) 또 石像으로써 如來座像 一軀(三國最大의 光背는 別石임)과 一光三尊像이 再調되었거니와(益山三箕面蓮洞里) 國都 扶餘에 있어서는 그들과 같은 巨像의 新例는 發見된 바 없고 오직 小像 破片 若干例를 增加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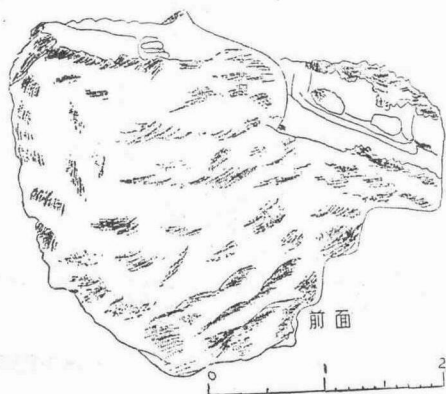
(1) 三尊石像片……一九六〇年頃 扶餘邑 佳增里 밭갈 洪思云氏로부터 入手된 것인데 洪氏談에 의하면 邑內 舊教育區廳에 隣接된 씨비스工場 附近의 地表에서 偶然히 拾得한 것이라고 한다. 橫一・五cm 高八cm 에 不過한 靑綠色의 蠟石片으로서 佛像下端部와 臺座一部만을 남기고 있다.

上面中央에는 座像으로 推定되는 本尊左膝의 隆起된 三角部만이 남았는데 그 前端上에는 反掌된 右足指가 길게 새겨져 있어 跏趺像임을 알 수 있다. 또 이 本尊 左後의 同一平面上에는 圓座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는 兩足만이 나란히 새겨 있을뿐 그 以上은 缺失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左右對稱의 手法으로 작은 菩薩立像이 配置되었던 것으로 推定되었다. 또 本尊膝部와 脇侍像 身部下端과의 사이는 連結되었고 그 上斷面과 水平을 이룬 背面殘基에서 미루어 이 三尊像이 光背를 具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脇侍像이 놓인 臺座의 側緣部는 原形을 남기고 있으므로 脇侍立像은 臺座兩端에서 光背의 兩緣을 이루고 配置되었다고 推定되는 바 이것은 當代 金屬製 三尊像에 있어서의 手法과도 同一하다)

다음에 下部는 臺座인 바 二段의 層級形을 이루고 있을 뿐 그 以下는



平面



前面

欠落되어 完形을 짐작할 수는 없으나 長方形에 가까운 佛座形式을 이루고 佛身 光背와 一石으로 造成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以上에서 當時에 流行하던 一光三尊佛의 樣式一部를 알 수 있는 바에 속하는 現存唯一의 石像遺例로서는 全北 益山郡 三箕面 蓮洞里 胎峯寺의 三尊石佛이 百濟末 七世紀 中葉의 作品으로 注目되고 있을 뿐이다. (註) 現在 알려진 百濟의 金銅 三尊佛 數例 또는 上學한 摩崖三尊이 모두 立像임에 比하여 이 遺例가 本尊座像 兩脇侍 立像의 樣式을 表示하고 있음은 그 臺座樣式의 特異함과 더불어 當代 三尊佛 樣式에 對한 考察을 위하여 매우 貴重한 三國期 石像資料라고 할 수 있는 點이 同時에 日本 初期의 同一樣式에 속하는 泐像과도 比較할 수 있는 點이 또한 注目되는 바이다. (七月三日)

註：公州 正安面 平正里에서 새로 發見된 一光三尊石像(高三三·五cm)은

新羅統初에 百濟故土에서 造成된 作品으로서 樣式系列에서 이 遺品

과 比較할 수 있을 것이다. (拙稿「公州石像佛像의 調査」「東國史學」

第六輯一九六〇年)

皇龍寺址出土瓦數種

洪 思 俊

西紀一九六一年十一月十三日字 慶州東方 普門水組 貯水地의 市內水路 工事가 進行하던 九黃里 즉 芬皇寺와 皇龍寺址界를 通過하는 水路掘鑿에서 八葉蓮瓣文槿瓦(完)와 其他 忍冬文막새(一部缺) 鬼面瓦(全) 花瓶으로 推測되는 土瓶(口缺)等이 一括出土 入手되었다. 이 遺品들은 비록 上記 兩寺界에서 發見되었으나 皇龍寺의 講堂址附近 東北方에 該當됨으로 皇龍寺에서 使用된 것으로 짐작된다.

1, 八瓣蓮花文槿瓦(完) 진灰色이고 製品이 粗雜하며 蓮子房에 比해서

第三卷 第七號 通卷二十四號

蓮瓣이 短形이다. 子房正中에는 直徑

四分小孔이 뚫려 鐵釘을 박은 곳이라 본다. 八瓣蓮花文周緣에는 二分強의 幅으로 周廻하여졌다. 厚五分 直徑 六寸四分 (寫眞右에서三)

2, 今年四月에 또

다시 上記槿瓦와 같은 文樣瓦가 出土되었는데 前者와 同一한 手法으로 製作되었고 子房 及 蓮瓣 大도等大하다. 다만 花文周緣에 平帶가 둘러있지 않음따름이다. 그리고 厚가前者것 보다 四分五厘가 두터웁고 圓周에 朱色을 바른 것이 지금도 남아볼 수 있으며 그 朱色을 칠한 瓦當의 前面(畫面)둘레가 後面둘레보다 작은 것이 特色이다. 厚 九分五厘 直徑 五寸七分(寫眞右에서二) 同時에 前者瓦當과 一括出土된 遺物들은 鬼面瓦로 普通 出土하는 것이며(높이 一尺一寸四分 肩幅 六寸五分 底邊 四寸九分 寫眞右二) 忍冬文막새 亦是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上下 높이 一寸九分 橫

